

보기 드문 가족사진집

이시우

박정자님이 『구연우 구동훈 가족사진집1』을 냈다. 가족마다 대개 사진첩 한 둘은 가지고 있지만 사진집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저자는 가족사진집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 사진기자역할을 하신 아버님이 남긴 많은 사진첩, 그 보물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나는 지인의 일화가 있었다.

그는 집에 불이 나서 순식간에 잣더미가 되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물건을 빼냈단다. 전소된 뒤 빼낸 물건들을 보니 전축, 텔레비전등 값나가는 가전제품 등이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너무 서러워 울음이 터졌다고 한다. 사진앨범을 제일먼저 빼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전제품이야 돈 벌어서 다시 구하면 되는데 돈으로 살수 없는 추억을 모조리 잣더미가 되게 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도 배웠다. 같은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구출해야할 물건 1호에 대한 결심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가승되어온 사진유산을 지킬 결심이 이 작업의 토대가 되었다. 풍부한 사진유산이 곁에 있다는 것은 사진에 대한 좀 더 특별한 감수성을 갖게 할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 사진유산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늘어만 가는 사진은 그저 골칫거리일 뿐이다.

사진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려면 가급적 이사를 다니지 말아야 하고 사진첩을 마음에 들어력이 있어야 한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음, 그 다음, 그 다음다음 순위에 위치하는 것이 여력이다.

사진보관이 본업이어야 할 전문사진작가들도 자신의 사진보관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이란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잡은 이사, 여의치 않은 형편의 가족사에서 25년 넘게 사진을 지킨다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진집은 수십 년간 결심을 유지해온 저자 자신에게 수여하는 헌정이다.

사진집은 주인공인 동훈의 최근역사인 해외여행과, 사회활동을 보여준 뒤 서서히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교 생활과 유아시절을 지나, 엄마아빠의 결혼, 친가와 외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생에서 증조할머니에게로 이어지는 4대의 삶이 담겨있다.

사람의 뛰어난 능력은 변화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매번 찾아오는 계절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을이란 한 단어로 통칭한다.

‘가을 어느날’에서 ‘가을’은 변하지 않음이며, 동일성이자, 일자이고, ‘어느 날’은 변화함이며, 다양성이자, 차이이다. 우리는 이 사진집에서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동훈의 모습을 만난다. 그와 더불어 변치않고 면면히 이어지는 동훈의 동일성을 발견한다.

신림동성당 김승훈신부를 존경하셨다던 외할머니, 저자의 얼굴을 닮은 큰어머니, 부산시절 노란 모자를 쓰고 놀이터의 나무 턱을 넘는 동훈이의 얼굴에 저자인 어머니의 얼굴이 그대로 배어있다.

어릴 적 장독대 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은 여행가는 기차 안 흥겨운 친구들 속의 모습에서, 결혼 후 아이를 목마태운 모습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동훈의 얼굴에서 유전의 뚜렷한 징표가 읽힌다. 얼굴과 몸만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습관이나 가치관도, 형태는 다르지만 유전된다. 사회적유전이다.

아버지가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팔뚝을 흔들며 민주동문회를 발족하는 사진이 눈에 띈다. 아버지는 졸업 후 친구와 출판사를 만들어 『분단을 넘어서』를 출판하고 수배를 당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92년 구로구청 투표함 사수투쟁에 연루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다 군대에 끌려갔다 한다. 1984년 한길사에서 출판한 리영희의 『분단을 넘어서』, 1988년 양은식의 『분단을 뛰어넘어』, 1990년 문규현 신부의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등 ‘분단’과 ‘넘어’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을 때 아버지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단을 넘어서’는 2016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통일전문 웹사이트 제목이 되었다. 아버지가 넘고자 했던 그 미국마저 아버지시대의 화두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아버지의 묘비에 동문들이 새긴 글자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80년대 대표적인 운동권가요였던 「농민가」의 첫 소절이다. 노동운동이 본격화되는 1988년 이전까지 가장 많이 불린 민중가요가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농민가」다. 80년대 전반은 농민운동의 시대였고 「농민가」의 시대였다. 가사를 쓴 이는 지금까지도 민족운동의 대열에 서 있는 김준기 교수였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농민운동, 민족운동, 반외세운동을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강하게 묻어 있었다. 이는 한 시대에 갇히지 않고 ‘사람세상’이라는 보편성을 얻게 된다. 이 문구는 나중에 인권운동가 노무현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이자 구호가 되었고 노무현재단의 이름이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온 세상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을 열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구호가 아들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동훈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노대통령추모행사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있는 사진에서 이 사회적유전을 확인한다. 뿐만 아니다. 효순·미선 추모공원에서도, 소성리 사드투쟁 현장에서도 동훈의 사회적유전은 발견된다.

자연적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도 유전된다. 그러나 저절로 유전되지는 않는다.

저자인 어머니나 주인공인 동훈에게서 수많은 도전과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딛고 살아낸 결과가 사회적유전으로 보일 뿐이다. 한 사람의 현재는 수많은 다른 이의 부재에 빚지고 있다. 오늘의 나는 수많은 몸짓을 끌어안음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포유류는 육지에 살거나 바다에 살거나 생존장소로 구분되지 않는다. 태어나서 상당기간 가슴에 안긴 채 살아야 한다면 모두 포유류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행위로 구분되는 류인 것이다. 쥐와 고래가 전혀 다른 외형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포유류인 것은 가슴 때문이다. 가슴에서 자라나 가슴으로 키우기에, 가슴의 기억이 유전된다.

무엇인가를 가슴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안는 그 순간만큼, 안은 것은 오직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안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가슴은 나머지 것을 등져야 한다. 가슴의 반대편엔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안는 주체는 흔히 자기이기에 안기란 통상 소유하기이다. 그러나 안기위해 자기마저 포기하면 순수한 안기만이 남는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안기자체인 것이다. 명사인 나는 실제 일 뿐 동사인 ‘안다’만이 주체이다. 나를 포기해야하는 안기란, 즉 주체되기란, 안정되고 영원하길 바라는 실체에겐 공포이다. 실체인 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내가 무엇을 안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머지 포기하고 끌어안는다.

이웃인 김정택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린 아이들과 잠들어 있는 집에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엄마는 큰아들을 안고 나오고 시력이 많이 좋지않은 아빠는 작은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심한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3주간 치료후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한다. 그 당시 작은 아들 동훈이에게 화상의 흔적은 살짝 보였다. 분명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에 데이지 않도록 가슴에 안고 화염을 뚫고 나왔을텐데, 그래도 아이들에게 화마의 열이 전달될 정도였다면 아버지는 그 열을 어떻게 견뎠을까’

아버지는 불 속에서 동훈을 끌어안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안기위해 자신마저 등졌듯이, 어머니 역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자신을 등지며 살아온 징후가 이 사진집에서도 드러난다.

저자인 어머니가 제작한 이 사진집은 동훈의 이름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훈의 1인칭을 어머니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표지사진은 저자만이 빠진 가족사진이다. 전화기로 들려오는 첫 소개는 ‘박정자입니다’가 아니라 ‘동훈 엄마예요’였다. 이메일 제목은 ‘동훈이네 집입니다’였다. 자신을 포기한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사진은 동사를 존재사로 만드는 매체이다. 존재사란 내가 붙인 이름이다. 움직임을 표시한다는 동사 중에 오직 ‘있다’ ‘be’ ‘sein’ ‘être’만이 움직임을 표시하지 않는다. 움직임을 표시하지 않는 동사이기에 존재사인 것이다. 사진은 ‘연주하다’를 ‘연주하고 있다’로, ‘울다’를 ‘울고 있다’로, ‘웃다’를 ‘웃고 있다’로 ‘걷다’를 ‘걸고 있다’로 만든다.

동훈이 걷고, 울고, 웃고, 연주하는 것을, 사진은 걷고 있고,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연주하고 있는 것으로 만든다. 수많은 다양함과 변화가 사진에서는 오직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진을 보며 하모니카를 불어보자. 있음을 연주하자. 하나의 있음을 연주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색의 연주가 나올 것이다. 연주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보자. 있음을 색으로, 형태로, 의미로, 찍고, 해석하고, 편집한다. 있음은 존재사이지만 ‘찍다’와 ‘편집하다’는 온전히 동사이다.

오직 하나의 있음은 동사와 만나 다양함으로, 변화함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가을 어느날’로 돌아가 보자. 많은 ‘어느 날’을 하나의 ‘가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의 ‘가을’에서 많은 ‘어느 날’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역시 사람이다. 이 땅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이 땅의 어느 부모도 같은 부모는 없다. 가을로 환원되지 않는 어느 날이 있듯이 부모의 이름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나도 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림, 「갈대」, 『농무』, (창작과비평사 1974)

저자의 친구인 일본활동가 이노우에 도모코는 자신이 어려웠던 시기에 저자로부터 “우리는 퓨전가족이다”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저자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아래에는 고독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많은 ‘어느 날’은 ‘가을’ 한 단어로 수렴된다. ‘가을’은 수많은 ‘어느 날’로 확산된다. 그리하여 숙명적으로 가을만 있거나 어느 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가을도 어느 날도 ‘가을 어느 날’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대상화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다. 동물도 의식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은 의식을 바라보는 의식을 갖는다. 자기의식이다. 의식이 만든 집착을 깰 수 있는 반성이다. 주체다. 동물도 자기를 실체로 인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체를 깨는 주체가 되긴 어렵다. 대상화란 자기가 깰 자기를, 자기의식이 깰 의식을, 물건처럼 외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대상화시킬 수 있을 때 주체가 된다. 그것이 남이 아닌 나에 대한 대상화일 때는 더욱 그렇다. 나를 나 아닌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글과 사진의 위대함은 나를 나로부터 거리두기에 있다. 저자의 사진집 작업이 성공했다면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가족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가족사진집의 성공을 위해 저자는 200쪽으로 기획했던 책을 100쪽이나 초과하게 되었다고 했다. 모든 증명은 강박이다. 증명불가능한 것에 대한 증명의 시도는 더더욱 강박이다. 성공을 목적함은 강박이다. 성공불가능한 것을 목적함은 더더욱 강박이다. 증명하려 할수록 반박되고 성공하려 할수록 실패한다.

실패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실패가 목적일 때가 있다. 떠나보내기 싫고, 내려놓기 싫고, 분리하기 싫을 때, 그럴 용기가 없을 때 창작자는 실패를 의도한다. 의도된 실패는 주체의 균열·흔들림을 보여주는 징후요 증상이다. 창작자는 당연히 성공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실패를 의도한다.

그러나 성공을 목적할 때만 진정한 실패가 가능해진다.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정성들이는 자만이 참된 실패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실패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사진집의 제목은 가족사진집1이다. 가족사진집2의 참된 실패를 기원한다.